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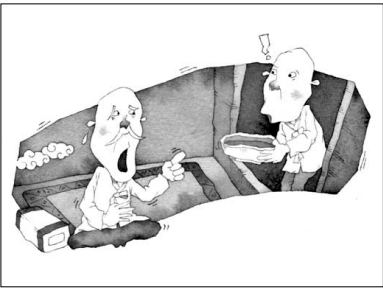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5>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흔적없이 그리고 얽매임없이 살아가고자하는 것이 선사들이 원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 이것을 불종적(不蹤跡)이라고 표현하였다.

급기야 이 불종적은 더욱 승화되어 깨달았다는 의식마저도 전허하는 참으로 제대로 깨달은 경지를 말할 때 사용되는 선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눈곱만큼이라도 아상(我相)을 드러내거나 행동거지를 남들이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은 뭔가 좀 덜떨어진 행위로 치부되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짐승이나 귀신의 눈에 띄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우두밥을 선사에게 새가 꽃을 물어다 주는 것조차 사조도 신 스님이 탐탁지 않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남자가 '꽃을 물어다 주지



"도대체 이 한 밤중에 누가 물을 끓여오라고 시키던가?"

시자가 이제까지 비몽사몽의 일을 자제히 이야기하니 선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결국 수행하는 법을 제대로 몰랐구나.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귀신도 알지 못해야 하거늘 오늘 나는 토지신에게 내 마음을 들려 일이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언짢은 마음을 낸 그것이 결국 호법신장에게 들려버린 것이다.

남전선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그는 농사짓고 소를 치면서 수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어느 날 선사가 농막을 들르게 되었다. 도착하니

장주(莊主)가 미리 점심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는 뜻이 맞이하는 거였다. 이에 선사가 물었다. "내가 평소 농장 출입시 남에게 말하지 않고 다니는데 어떻게 읍졸 알고서

미리 공양을 준비했는가?"

"지난 밤에 토지신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수행의 힘이 모자라 내 마음을 귀신에게 들켰구나."

토지신을 모셔놓은 해인사 국사단(局司壇)은 예로부터 영험있다고 소문이 나서 인근마을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인기있는 전각이다.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도 명절에 고향에 오면 국사단을 참배하곤 한다. 어쨌거나 수행자는 '신독(慎獨)'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대중과 함께 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삼가하고 또 삼갈 일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종적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당나라 아보(治父)선사는 흔적없는 삶을 이렇게 시어(詩語)로 묘사하였다.

대나무 그림자가 섬들을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 달빛이 호수바닥을 뚫어도 수면에는 흔적이 없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수행 동호회 적극 활용하자

생활 속 수행, 지도자들에게 묻다 (下)

▶ 경전 한줄이라도 매일 읽자

스승과 도반의 중요성은 세상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전공부다. 수행지도자 대부분은 "이론적인 토대없는 수행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해거 스님(금강선원장)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경전이며, 교리공부는 불자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전을 세우는 것이 수행의 기초임을 감안할 때 경전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필수적이다.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는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교리이해 없이 경전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전공부는 불교대학에서 하는 것도 좋고, 일상에서는 약간의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해나가는 것이 부담이 없다.

중요한 것은 가끔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경전을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전이 손에 익으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 하루 설계하고 돌아보자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은 "수행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생

활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생활을 리드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새벽이나 아침, 또는 저녁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차분히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새벽 정근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벽정근은 게으름을 쫓을 수 있고 신심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는 잠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참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됨을 의미한다.

경전은 자기 공부 점검하는 확실한 방법 새벽이나 잠자기 전 마음 모으는 시간 갖고 자기관련 항목 만들어 실천하면 큰 도움

대호 스님(원명선원장)은 "이렇게 훈련된 불자들은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 흥분하는 경향이 현저히 적다"며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정해서 집중수행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일상에서의 수행은 나태해지기 쉽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수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시생 자녀가 있는 불자의 경우 입시 100일 전에 입재해 입시 당일 날 회향하는 방식이나, 또는 안거에 맞춰 일정기간 집중수행을 하거나, 관음·



교리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들. 교리에 대한 이해없이 수행하는 것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수행 지도자들은 조언한다.

지장재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다.

휴가 때나 매월, 또는 매주 일정한 날(기간)을 정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통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이렇게 특정한 계기를 만들어 일정을 정해놓고 하면 분위기도 새롭게 하고 수행하는 재미도 맞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생활에서의 집중수행은 평소 때보다 수행시간을 다소 늘린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기 쉽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고 발심을 되새기는 계기도 된다.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도 알게 되고, 자기가 하지 못한 도반의 체함을 공유하면 좋은 공부도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자기 '금지선'을 정하자

"수행은 자기단련과정입니다. 나는 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하는 항목을 한 두 가지 정해 실천하는 것이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거 스님은 스스로 직접 해보고, 또 불자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방편이라며 '자기금지선'을 정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이름 이상 경전을 보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한다'거나 '좌선할 때 좋지 않는다'거나 '하루 6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는 등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반드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는 약속을 한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지선을 정해놓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우선은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출발해 차츰 금지선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자신에게 냉정해야만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인 스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며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도움말씀 주신 분들

대호 스님(원명선원장) 법현 스님(임제선원장) 해거 스님(금강선원장) 호란 스님(보통사 주지) 정목 스님(정도원장)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 덕산 스님(해은사 주지)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 김열권(위빠사나 지도부) 김경호(전통사경연구회장)

흔적조차 없이 자유로이 살고 싶었던 선사들 귀신(?)에게 마음 들려버리고는 스스로 탄식

않는' 서운한(?) 이유를 물으니 동산(洞山) 선사는 '온몸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의 눈에 더 이상 우두선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제대로 닦은 선사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대선사인 백장 스님께서는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을 깬다. 갑자기 더운 물이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시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몇 번 나직이 불러도 기척이 없었다. 결제를 하고있는 대중스님들에게 심야에 혹은 누(需)가 될까봐 더 이상 큰소리로 부를 수도 없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누군가가 시자의 방을 두드리며 깨웠다. 그가 부스스한 표정으로 눈을 비비며 일어나 계승츠레 앉으니 말했다.

"큰스님께서 더운 물을 찾으시오." 시자가 놀라 벌떡 일어나 재빨리 물을 끓여 큰스님 방으로 냉큼 달려갔다. 백장 스님이 도리어 의아해하며 물었다.

"자난 밤에 토지신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수행의 힘이 모자라 내 마음을 귀신에게 들켰구나."

토지신을 모셔놓은 해인사 국사단(局司壇)은 예로부터 영험있다고 소문이 나서 인근마을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인기있는 전각이다.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도 명절에 고향에 오면 국사단을 참배하곤 한다. 어쨌거나 수행자는 '신독(慎獨)'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대중과 함께 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삼가하고 또 삼갈 일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종적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당나라 아보(治父)선사는 흔적없는 삶을 이렇게 시어(詩語)로 묘사하였다.

대나무 그림자가 섬들을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 달빛이 호수바닥을 뚫어도 수면에는 흔적이 없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원근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나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사전 제대로 알아!”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기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기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기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기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기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기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기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기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기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기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기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